

## “다문화사회론”

(엄한진 저, 2011년, 도서출판 소화)

### : ‘다’양한 ‘다’문화 현상의 ‘다’면적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정의철\*

다문화사회는 언어, 인종, 민족, 문화가 다양한 상태 자체이기 보다는 모든 집단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다양한 가치가 무시되지 않으며(윤재희·유향선, 2009), 다원성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사회이다(원진숙 외, 2010).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른 문화의 입장으로 감정, 사고, 가치관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엄한진, 2011). 이는 다문화사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 상호작용과 적절한 다문화정책과 교육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지난 10여 년간 ‘다문화’는 우리사회의 화두였다.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자랑하듯이 내세웠던 한국도 세계화와 산업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의 여파로 진행되는 국가 간 이동과 교류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5년 12월 1,899,519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체 인구의 3.7% 정도를 차지하며 중국 955,871명(50.3%), 미국 138,660명(7.3%), 베트남 136,758명(7.2%), 태국 93,348명(4.9%)의 순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8). 국내 이주민의 유입은 크게 두 갈래도 이루어지는데, 저임금 노동을 선호하고,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결합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가장 규모가 크게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과 농촌 총각 결혼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유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다문화의

---

\* 상지대, 커뮤니케이션학, clerk88@hotmail.com

배경에는 국제적 요인들도 작동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여파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급증, 인종과 문화의 이동과 충돌의 심화도 그 배경이다(김남국, 2010; Georgiou,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대량이민의 경험이 부재하며, 이주민과의 충분한 접촉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와 언론 등 위로부터의 계몽에 의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 등 소수자의 권리보장은 고사하고 정체성조차 부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자발적인 목소리가 미약하고, 사회적으로는 소수자를 이해하는 문화적 감수성도 부족하다. 또한, '타자로서의 거리두기'로 인해 다문화 연구에서조차도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표면적인 분석에 치중하거나, 지배집단 관점의 연구 경향이 강하다(이창호, 2012). 즉,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한국적 관점에서 이주민과의 충분한 접촉이나 이해가 없는 가운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름'과 '구별'의 고착화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론(엄한진 저, 2011년)"은 다문화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이자, 학문적 오아시스이며,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다.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책의 저자는 다문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와 사례들을 이론적, 역사적, 실천적 관점 모두를 동원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다문화를 이끄는 이민현상과 그로 인한 결과에서 전 지구적인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 문화적 갈등, 불법체류, 인종주의, 인구문제, 안전문제와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p.8-9)라고 주장하며,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이나 다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인 자세, 국내외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다문화정책,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언론이나 정책이 표방하는 호의와 실제 이주민이 겪는 반인권적 상황의 괴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저항적 다문화주의를 소개하면서 다문화담론 및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온정주의는 주류 중

족 중심의 통합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수적 자유주의를 비판했다(p.101). 한국사회는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유색인종을 차별의 시선으로, 백인은 부러움이나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인종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의미가 크다. 한국사회가 표방하는 거창한 다문화 담론과 경제적, 문화적 빈곤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화려한 수식으로 연결되는 다문화사회를 떠받치는 담론과 양적으로 확대된 다문화정책에 앞서 이주민의 정치·경제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한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격고 있는 ‘다문화’ 현상을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여정’으로 보고, 경제적으로는 주변부에서 탈피해 중심부로 진입하고, 외부세계와의 단조로운 관계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모이는 공간으로의 변신 과정으로 정의했다(p.6). 저자는 사회학자이면서도 머리말에서부터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다문화를 다루는 공익광고, 다큐, 뉴스, 드라마, 교과서 등의 담론은 다문화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를 억압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p.6). 아울러, 언론이나 정책이 표방하는 다문화정책과 실제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문화적 빈곤 간의 괴리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책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정부나 미디어에 의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대중화는 불안정하며, 상징투쟁을 동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문화, 이주민, 혼혈인, 이주(외국인) 노동자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용어의 통일 보다는 연구자의 입장과 맥락에 맞게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유럽, 미국, 아시아의 문화 간 교류와 충돌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미국, 일본 중심의 국제 이주에서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역사적 관계가 약했던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도 늘어나는 듯 국제이주 자체도 다양화되고 있다. 저자는 국제이주의 배경으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된 탈냉전과 세계화, 지역분쟁에서 발생한 난민,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경제변동으로 인한 빈곤화와 불평등 심화가 초래한 대량이민이 이민의 주된 현상들이다”(p.48-49)라고 설명했으며, “중심부 국가

들에서 새로운 노동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량이주가 나타났다”(p.49)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이주의 배경과 역사, 원인에 대한 깊이 있고, 생생한 분석은 다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장(세계화와 새로운 이민)에서는 문명론, 문화적 다양성 개념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제이주의 역사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가 유학한 프랑스의 이민역사, 그리고 이민문제의 기원과 서구와 비서구인, 일본의 뉴커머 등 다양한 이주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2장(이주민의 사회통합)은 문화접변과 동화, 소수민족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대응 유형(차별배제, 동화, 다문화모델), 영국과 프랑스의 이민 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비판)에서는 다양한 다문화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판적, 저항적 다문화주의 개념을 통해 단순한 다양성의 전시가 아니라 차이가 발생하는 권력관계를 이해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의 다문화주의 사례들도 소개했다. 제4장(한국 종족적 소수자의 역사: 화교에서 결혼이주 여성까지)은 한국의 종족적 소수자의 유형과 역사와 함께 다양한 한국적 이민의 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푸코의 권력 논의를 바탕으로 화교, 기지촌 여성, 혼혈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제5장(한국의 다문화 담론 및 정책)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전개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역사와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한 한국에서의 이민 논의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장에서는 일방적인 ‘한국인화’에 치중하는 다문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온정주의적 정책의 현실과 ‘인정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으며, 수적으로 훨씬 많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과 차별의 사례를 지적했다. 제6장(이민과 인종)에서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의 기원과 현재 존재하는 인종주의의 양상과 관련 사건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불관용이 더욱 미묘한 형태 및 실체로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샤를리엠프 사건, 유럽에서의 테러, 미국에서의 인종주의적 폭력 등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타자’에 대한 폭력이 더

욱 빈번해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적은 의미가 크다. 7장(이민과 종교)에서는 이민과 종교의 관계, 이주민 사회운동으로의 종교, 한국 이주민 사회의 종교의 현황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종교적 다양성과 관련한 히잡 문제에 대한 유럽의 사례와 이슬람 정책의 변화를 소개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장인 8장(종족 간 공존의 조건)에서는 종족 간 공존의 문제를 풍부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해 설명하면서 공존을 위한 시각의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을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 이자, 능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사회의 주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실천적인 제안으로써 의미가 크다.

1-8장을 관통하는 저자의 주장은 국내외 이주와 다양한 다문화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함을 바탕으로 다문화정책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문화 간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 현상에 대한 성찰과 체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과 교육, 일상의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주민을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의 관점에서, 또 능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한국사회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p.264-265). 이는 이 책이 이론적, 역사적 탐색과 분석에서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사회적이며, 문화적이고, 국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화적 자산을 갖게 되는 계기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문화의 배경과 역사, 현실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상호작용과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 책은 다문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하고,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이론적 길라잡이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모두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